

“한 표라도 더” 마지막 지지 호소 자정까지 총력 유세

초대 통합특별시장·교육감 후보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경쟁 가열
시장·골목·대학가서 표심잡기 사활
광산을 보선 후보들도 막판 호소전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들이 전남·광주 곳곳을 돌며 지지층 결집과 막판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후보들은 이른 새벽 출근길 인사부터 거리 유세, 상가 순회 등 공식 선거운동 종료 시각인 이날 자정까지 유세를 이어가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은 전남·광주 주요 거점을 오가며 총력 유세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남부대 수영장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구례 버스터미널과 담양 천변주차장, 함평 파크골프장 등을 찾았다. 이어 광주 말바우시장과 동명동 푸른길 일대에서 도보 유세를 진행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곡성에서 농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광주 산단 입구 출근 인사와 광주 5개 자치구 순회 유세를 이어갔다. 양동시장과 KTX 광주송정역, 첨단지구, 상무지구, 충장로 등을 돌며 통합특별시장 비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흑석사거리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광산구와 북구 일대를 순회했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진보당 광주 후보자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전남대학교 일대 도보 유세와 장등동 버스차고지 인사까지 이어가며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펼쳤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여수 석창사거리와 서시장, 순천 국민은행 사거리와 아랫장 등을 방문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국민의힘 이정현·진보당 이종욱·정의당 강은미·무소속 김광만 후보(기호 순).

(각 후보 측 제공)

한 뒤 광주 서구와 광산구 일대에서 유세를 벌였다. 오후에는 수완지구 롯데아울렛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하남산단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호남대학교와 화순 열린도서관, 광주 챔피언스필드, 전남대학교 후문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통합특별시장교육감 후보들도 이날 출근길 인사와 변화가 등에서 유세를 펼치며 막판 부동층 표심 확보에 화력을 집중했다.

강숙영 후보는 광주 남구 남부시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어 쌍촌동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유세를 이어갔다.

김대중 후보는 이날 오전 진도 전통시장과 장흥 정남진도요시장에서 유권자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 서구 운전저수지 광장에서 마지

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 호소와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정선 후보는 이날 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조선훈정문과 가야타이거즈 챔피언스필드 등에서 거리유세를 이어갔으며, 충장로 1가 입구에서 피날레 집중 유세를 열고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장관호 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소요되는 공적 비용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서약을 하며 상대 후보들을 향해 “교육감은 그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정직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며 “도박 혐의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교육감으로 인한 교육행정 공백은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경고하며 공세에 집중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민심 공략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임문영 후보는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청년 창업지원 전문가와 상권 활성화 기획자들을 만나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의 힘, 이제 광산에서 만들어 달라”며 “이재명의 AI 전략, 성과로 증명할 사람 임문영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신가동 스타벅스 앞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하남 제2우체국과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 쌍용사거리 등에서 차량 유세를 펼쳤다. 안 후보는 “민주당 1당 독점을 견제하고 실용과 합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야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는 하남동과 수완동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벌였다. 배 후보는 변화와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산 발전을 위한 대안 세력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진보당 전주연 후보는 버스 종점과 남부대수영장, 하남6번로, 산월IC 등에서 출근길 인사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과 진곡산단 식당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하남다사로움2차와 월계동·단전경로당, 첨단지역 상가 등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난 뒤 수완·첨단 일대 유세에 집중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전자공고 앞 교차로와 첨단초등학교 등곳길 인사를 시작으로 첨단동, 신창동, 수완동 일대를 순회했다. 이어 수완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한 표를 호소했다.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새벽 인사를 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후 광산구 전역 차량 유세와 신창IC 퇴근길 유세, 흑석동 먹자골목 상가 방문 등을 이어가며 심야까지 선거운동을 펼쳤다.

/박선옥·변은진 기자

광주시·전남도, 地選 투표소 준비상황 점검



유권자 이동동선·안내표지판 등
교통약자 접근성·편의시설 확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지역 359개 전체 본투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현장 점검은 시민 불편 요소를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실시했다.

각 투표소에서는 경사로 높이, 전동휠체어 이동공간 등 접근성, 투표소 동선 및 안내 체계, 기표소·투표함 설치 상태, 정전·통신장애 등 비상 상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전남도도 이날 목포 부주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부주동 제2투표소를 찾아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목포시 선거관리 현황과 투표소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투표소 내·외부 시설과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투표함과 기표대, 선거인명부 단말기 등 투표 운영장비 설치 상태를 비롯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유권자 이동 동선과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등을 살폈다.

또한 투표소 전기·통신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투표 당일 선거

인 안전관리 대책과 질서유지 방안도 확인했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투표소 운영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도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지정 투표소는 각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광주교통문화연구소가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